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4.40원 하락한 1,182.40원에 마감
------	------------------------------

15일 환율은 전일대비 4.40원 하락한 1,182.4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30원 하락한 1184.50원에 개장했다. 위험선호심리를 회복하며 갭다운 출발한 환율은 결제 수요 유입 등에 낙폭을 축소하며 1,185.0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하였으나 수급상 매도 압력이 우위를 보이고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자 환율은 재차 하락하며 1,180원대 초반으로 레벨을 낮추었다. 오후 내내 1,180원대 초반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 전일대비 4.40원 하락한 1,182.40원에 마감하였다. 장중 변동 폭은 3.5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36.64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84.50	1185.00	1181.50	1182.40	1182.8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43.81	1043.81	1032.49	1036.29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76.15	1376.58	1369.47	1371.34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9	1.22	2.34	5.57
	결제환율(수입)	0.65	2.3	3.89	8.08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글로벌 리스크 온 분위기 속 수급에 주목...1,18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예상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8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82.40원) 대비 0.30원 상승한 1,183.50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리스크 온 분위기에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9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7% 증가하며 예상치(-0.2%)를 상회하였다. 소비활동의 꾸준한 회복세에 경기 회복 낙관론이 재점화되며 글로벌 위험선호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이 헝다 그룹 문제가 금융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통제가 가능하며 헝다 문제는 개별적인 현상이라

고 발언함에 따라 아시아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위험선호심리 회복 요인에 따라 달러-원 환율은 하락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180원대를 단기 저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수입업체 결제 등 달러 매수 수요는 환율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77.00 ~ 1185.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862.7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30원 ↑
	■ 美 다우지수 : 35294.76, +382.2p(+1.0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8.3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047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